

원격대학 학습자의 학업스트레스와 ASE 모델 요인이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and ASE(Attitude-Social Influence-Self Efficacy) Model Factors on Academic Persistence of Online University Students

이다예*, 서영숙**, 김영임***

중앙대학교 한국라이프스킬교육센터*,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

Da Ye Lee(didieblue@hanmail.net)*, Young Sook Seo(seoys00@daum.net)**,
Young Im Kim(young@knou.ac.kr)***

요약

개인적 변인의 폭이 넓은 학습자 특성과 학업 방식의 독특성, 그리고 다양한 학습 환경이라는 특성을 가진 원격대학생의 학업지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격대학 학습자에 대해 행위수행의도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ASE 모델을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은 새로운 접근이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격대학 학습자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습태도, 사회적 영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으로 구성된 ASE 모델요인과 학업지속의도 간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요인이 원격대학 학습자의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 원격대학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181명의 설문 자료를 빈도분석, X²검증, t-검증, F-검증, Pearson's correlation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학업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15.76, p<.001), 설명력은 29%였으며, 유의한 영향요인은 학업스트레스($\beta=-.16, p=.016$), 온라인 학습태도($\beta=.44, p<.001$)와 사회적 영향 요인 중 사회적 지지($\beta=.13, p=.045$)였다. 원격대학 학습자의 학업지속의도를 높이기 위해 학업스트레스를 낮추고, 온라인 학습태도를 높이며, 사회적 지지를 구축할 수 있는 정교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 중심어 : ASE 모델 | 학업스트레스 | 학업지속의도 | 온라인 대학교 |

Abstract

An analysis including ASE model accessing based on the intention of behavior performance of online university students is a new approach to improve academic persistenc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ith extensive personal variables, a uniqueness of learning environmen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ASE model including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persistence, and the effect of these factors on academic persistence of online university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181 sophomores in K open university from March to June, 2018. Frequency analysis, X²-test, t-test, F-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ed for data analysis. For factors affecting academic persistence, academic stress ($\beta=-.16, p=.016$), online learning attitude ($\beta=.44, p<.001$), and social support among social influential factors ($\beta=.13, p=.045$)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prediction model of academic persistence showed 29% explanation power (F=15.76, p<.001). To enhance academic persistence of online university students, it is needed to develop programs to reduce academic stress, improve attitude toward online learning, and improve social support.

■ keyword : ASE Model | Academic Stress | Academic Persistence | Online University |

* 이 연구는 2018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8년 09월 03일

심사완료일 : 2018년 10월 17일

수정일자 : 2018년 09월 17일

교신저자 : 김영임, e-mail : young@kno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4차 과학기술혁명 시대에서 지식기반의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고, 특히 원격교육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 원격교육기관의 동향을 보면 1972년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2001년 이후에 21개의 사이버대학이 설립되었으며, 최근에는 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 강의중심의 과목 운영이 증가되고 있다. 이는 21세기 대학교육에서 원격교육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 및 실용성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된 결과이다.

특히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한국 최초의 국립 원격대학으로, 2017년 현재 총 478,57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1], 원격교육에 있어 사이버대학 등 다른 교육기관에 비하여 재학생과 졸업생 수에서 선두의 위치이고, 다양한 학생특성을 나타낸다.

이 대학에서 수업연한 내 졸업하는 정규 졸업률은 2000년에 10.5%였고 2016년에 평균 21.9%로 증가하였으나 일반대학에 비해 낮은 상태라 할 수 있다. 또한 10년간 평균 졸업률은 36.5%로 정규 졸업률보다 높으나 역시 일반대학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에 있다. 학년별로 보면 3학년 편입생의 졸업률이 42.9%인데 비해 1학년과 2학년은 31.7%에서 30.2%였으며, 연령, 성별, 학과별,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2]. 이러한 졸업률은 인구사회적 요인을 포함해 학업지속에 대한 의지와 관련이 있는데,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학업지속의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2학년의 학업지속의도가 다른 학년보다 낮다고 보고된 바 있어[3], 학업지속의도가 특히 낮은 학년에 대한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

원격대학을 졸업한다는 것은 학업지속의도가 높을 때 가능하다. 원격대학은 일반 대학과 다른 교육방식과 교과과정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고,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학습 가능성과 편리성이 우수한 학습방법으로 인식되어 최근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격대학의 장점은 오히려 오프라인 교실수업에 익숙한 학습자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균형 있는 학업성취를 이루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원격대학생들은 높은 학습의욕을 지닌 만

면, 학업 수행시 다양한 역할수행을 동시에 해야 하는 학습환경 특성상 온라인 교육방식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4].

그간 일반 교육과정에서의 학업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성취동기, 학교몰입, 학교참여 등과 경제, 사회적 상황, 지리적 접근성 등이 제시된 바 있고 [5], 대학위상과 대학선택 등 대학만족도나 전공만족도가 관련된다는 연구[6], 학생자신의 대학생활 만족도가 학업중단 의도를 결정한다는 연구[7] 등 여러 변인이 포함된 관련 연구들이 선행되어졌다. 이와 함께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대학에서 개인 변인, 교육기관 변인 및 사회적 변인 등을 포함해 중도 탈락 의도를 살펴본 결과, 개인적 변인이 주요 요인임이 규명된 바 있다[8]. 그리고 사이버 수업과 관련해 학업스트레스, 성취동기, 학습환경을 포함한 변인들의 학습지속의향에 대한 연구[9]와 학습 환경에서 학업스트레스와 성취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10]에서는 공통적으로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지속의향과 성취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러 관련요인 중 학업스트레스가 중도탈락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11]. 이에 학업지속의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 학업스트레스가 개인 변인으로써 원격대학생의 학업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사회심리적 요인이 특정 행위의도를 통해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있어 태도-사회적 영향-자기 효능감으로 구성된 ASE 모델(ASE: Attitude - Social Influence - Self Efficacy Model)의 건강행위적용 연구에 관한 관심이 높다. ASE 모델은 합리적 행위이론의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행위수행의도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모형인데, 초기에 암 조기검진행위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후 고환암 조기검진, 흡연의도, 요실금 환자의 골반운동행위 등 다양한 건강예방행위에 적용되어 관련 행위의 영향요인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보고된 바 있고[12-14], 대만 청소년의 씹는 담배에 관한 행위규명을 위해 이 모델을 적용하였다[15][16]. ASE 모델을 구성하는 요인 중 첫 번째 요인은 행위의도를 인지하는 태도인데, 이는 특정행동에 대해 좋아하

는지/아닌지로 구성된다. 두 번째 요인은 사회적 영향이며, 사회적 영향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회규범의 중요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사회적 규범, 모델링과 사회적 지지로 구성된다[17]. 세 번째 요인은 자기효능감으로써 특정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적 믿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자기효능감 상승은 건강행위의 수행으로 귀결된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건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유방암 조기검진 행위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써 보고되었다[18]. ASE 모델을 국내에서 적용한 연구로는 간접흡연 주장행위[19]와 흡연 중학생의 금연의지와 비흡연학생의 미래흡연의지[20][21]에 관해 ‘태도-사회적 영향-자기효능감’으로 연결된 ASE 모델의 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

교육관련 행위에 ASE 모델을 적용할 경우, 태도는 학습에 관한 개인의 긍정 혹은 부정적 경향성을 말하는 것이며, 학습자의 학습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인지·정서·행동적 반응경향성으로 학습된다는 개념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학습태도와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습태도를 원격대학 학습자에게 적용한 연구[22]가 있고, 이러닝에서 학습자의 학습지속의향에 대해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간 관계[23],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수업만족도와 성취도간 관계[24],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적 자기효능감[19]에 관한 연구 등 학습태도와 자기효능감을 각각의 변인으로써 개별 적용한 연구들이 있다. 하지만 ASE 모델을 교육행위와 관련된 행위의도요인으로써 학업태도와 자기효능감을 함께 살펴보거나, 더 나아가서 사회적 영향을 포함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 대학생보다 개인적 변인의 폭이 넓은 학생특성, 학습 환경과 학습방식의 독특성을 가진 원격대학 학습자에 대해 ASE 모델을 포함한 행위의도 중심의 분석은 새로운 접근이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격대학 학습자의 학업스트레스, 학습태도, 사회적 영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으로 구성된 ASE 모델과 학업지속의도간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요인이 원격대학 학습자의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습지속의도에 대한 장애요인을

낮추고, 나아가 학업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원격대학에 다니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와 ASE 모델이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여 원격대학 학습자의 학업지속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며,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와 ASE 모델(온라인 학습태도-사회적 영향-학업 자기효능감) 및 학업지속의도 정도를 파악한다.
- 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지속의도와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 다.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ASE 모델 및 학업지속의도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라. 대상자의 학업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원격대학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와 ASE 모델이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서술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프로그램 Ver. 3.1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25, 검정력 .80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156명의 대상자 수가 요구되므로 약 15% 정도의 자료 탈락률을 고려하여 최소 180명으로 결정하였다. 자료수집 결과, 총 181명의 완성된 조사표를 수집하였고, 분석을 위한 표본 수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자료수집 대상은 K 원격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일개 지역에서 오프라인수업에 참여하고, 연구에 동의한

학생으로 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학업지속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던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개 지역 2학년 재학생 총 298명 중 64.2%인 181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자료수집은 K대학교 연구윤리심의(심의번호 ABN-01210803-21-05) 후 구조화된 설문조사표를 이용하여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이 조사가 연구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 등을 포함한 설명문과 동의서를 제공하고, 연구참여 동의서에 직접 서명한 후 참여하도록 하였다.

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구사회 및 학업특성)과 학업스트레스, ASE 모델(온라인 학습태도-사회적 영향-학업 자기효능감) 및 학업지속의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도구의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미를 의미한다.

3.1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스트레스 척도[25] 문항 중 학업스트레스 7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의 신뢰도계수는 .839였고, 본 연구에서는 .829였다.

3.2 ASE 모델

본 연구에서는 ASE 모델을 원격대학 학습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온라인 학습에 대한 태도, 사회적 영향 및 학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다.

온라인 학습태도는 평소 원격학습에 대한 느낌, 자세와 의향에 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 및 좋고 나쁨의 정도로 정의한다. 검사지 원본은 'The Adult Attitude Toward Continuing Education Scale(AACES)'[26]였으며, 원격대학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습몰입, 학습태도, 학습만족도,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분석 연구 중 학습태도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한 9개 문항의 학습태도검사지[22]를 사용하였다. AACES 도구의 신뢰도계수는 .780이었고[26], 학습검사태도지는 .890이

였으며[22], 본 연구에서는 .856이었고, 역문항은 1, 2, 4, 5번이었다.

사회적 영향은 사회적 규범, 타인의 행위에 대한 지각, 그리고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직접적인 압력 혹은 지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부 영역으로 사회적 규범, 사회적 지지 혹은 압력, 모델링(타인에 대한 지각)으로 구성되는데 원격대학생의 학업지속의도와 관련된 연구를 목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초기 도구는 흡연 중학생에게 적합하도록 보완한 설문지 [20]를 참고로 하여 수차례의 연구진 회의와 2회의 시험 조사를 통해 사회적 규범, 모델링, 사회적 지지에 대해 각 2문항씩 총 6문항을 확정된 것이었다. 이후 사회적 영향에 대한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 요인분석의 상관계수는 6 문항 모두 .40이상이었고, KMO값이 .90, Bartlett 구형성 검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p < .001$) 요인분석모델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6문항 모두 내용타당도 지수(CVI)가 .80이상으로써 채택되었는데, 하부 영역의 성분분석 결과, 두 개의 주성분으로 분류되어 최종적으로 사회적 영향은 사회적 지지와 모델링으로 재분류하였다. 선행연구의 신뢰도계수는 .645였고, 본 연구에서는 .859였다.

자기효능감은 특정 행위 수행능력에 대한 개인 신념을 의미하며, 학업 자기효능감에 대해 MSLQ(Motivation Strategies for Questionnaire)[27] 중 8개의 학업 자기효능감 측정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의 신뢰도계수는 .93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3이었다.

3.3 학업지속의도

학업지속의도는 원격대학 학습자가 원격학습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 참여가능성과 지속적인 참여 의사를 의미한다. 학업지속의도의 측정은 원격학습의 성공예측요인 연구시 사용한 측정도구[28]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에서 학업지속의도는 학습완료의 중요성, 학습지속 방해요인, 극복의지와 같은 세부 영역으로 나뉘어 각 2문항씩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 신뢰도계수는 .83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65였다.

3.4 인구사회 및 학업관련특성

인구사회 특성은 성, 연령, 최종학력 및 결혼, 직업의 5항목, 학업관련특성은 스터디그룹 참여, 멘토링 참여, 졸업 후 관련자격증 취득, 원격학습시 어려운 점 4항목 등 총 9항목으로 구성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통계패키지프로그램 ver. 23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X²검증, t-검증, F-검증, pearson's correlation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과정에서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III. 연구결과

1. 주요 측정변수의 평균 및 신뢰도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온라인 학습태도, 사회적 영향, 학업 자기효능감 및 학업지속의도 정도에 대한 평균, 편차 및 신뢰도 계수는 [Table 1]과 같다.

학업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2.94(±0.65)점이었으며, 온라인 학습태도는 4.28(±0.55)점이었다. 사회적 영향은 평균 3.40(±0.75)점이었는데, 그 하부영역 중 모델링은 2.88(±0.99)점, 사회적 지지는 3.66(±0.79)점이었다. 학업 자기효능감은 3.40(±0.63)점이었으며, 학업지속의도는 4.24(±0.63)점이었다. 각 변수의 신뢰도계수는 .805~.933의 범위였다.

Table 1. Mean, standard deviation and Cronbach's α in variables

(n=181)		
Variables	M±SD	Cronbach's α
Academic Stress	2.94±0.65	.829
Online Learning Attitude	4.28±0.55	.856
Social Influence	3.27±0.77	.859
Modeling	2.88±0.99	.805
Social Support	3.66±0.79	.885
Academic Self-Efficacy	3.40±0.63	.933
Academic Persistence	4.24±0.63	.865

2. 인구사회 및 학업관련특성에 따른 학업지속의도 간 관계

대상자의 인구사회 및 학업 특성에 따른 학습지속의도 간 관계는 [Table 2]와 같다. 먼저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78.5%가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이 42.4(±11.83)세였다. 연령대별로 40대가 33.1%로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이 28.7%, 30대가 21.5%, 20대 이하가 16.6%를 나타내 40대 이상의 비율이 61.8%를 나타냈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66.3%였고, 최종학력은 고졸이 37.6%, 전문대졸과 대졸이상이 각각 32.0%, 30.3%를 나타냈다. 대상자 중 72.9%가 직업이 있었다. 학업특성은 스터디그룹에 참여한다가 24.0%였고, 멘토링 참여여부에서 참여한다가 16.0%로 나타났고, 졸업 후 자격증취득 관련여부에서 관련있다가 47.0%를 차지하였으며, 원격학습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73.5%였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and academic persistence

Variables	Category	N(%)	Academic Persistence	
			F/t	p
Sex	Male	39(21.5)	-0.52	0.606
	Female	142(78.5)		
Age	< 20	30(16.6)	1.77	0.137
	20-29	39(21.5)		
	30-39	60(33.1)		
	40 ≤	52(28.7)		
	M±SD	42.4(±11.83)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68(37.6)	1.12	0.329
	Associate	58(32.0)		
	Over Bachelor's	55(30.4)		
Marrital State	Single	61(33.7)	-2.56	0.011
	Married	120(66.3)		
Occupation	None	49(27.1)	-,0.77	0.443
	Employed	132(72.9)		
Study Group	No	137(75.7)	-3.37	<.001
	Yes	44(24.3)		
Mentoring	No	152(84.0)	-1.27	0.207
	Yes	29(16.0)		
Certificate	No	96(53.0)	-2.30	0.022
	Yes	85(47.0)		
Difficulty in E-Learning	No	48(26.5)	-0.58	0.566
	Yes	133(73.5)		

인구사회 및 학업특성에 따른 학업지속의도간 관계를 살펴보면, 인구사회적 특성에서는 결혼여부에 따라 학습지속의도와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56, p=.011$), 학업특성에서는 스터디 참여 여부($t=-3.37, p<.001$)와 졸업후 관련자격증 취득여부($t=-2.30, p=.022$)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미혼, 스터디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졸업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 학업지속의도가 유의하게 낮은 경향을 보였다.

3. 학업지속의도와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

대상자의 학업지속의도와 측정 변수간 상관관계의 파악을 위해 학업지속의도와 학업스트레스, 온라인 학습태도, 사회적 영향(사회적 지지와 모델링) 및 학업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s in variables

(n=181)

	Academic Persistence	Academic Stress	Online Learning Attitude	Social Influence Modeling	Social Support	Academic Self-Efficacy
(constant)	1					
Academic Stress	-.20*	1				
Online Learning Attitude	.51**	-.04	1			
Social Influence	Modeling	.18*	-.26**	.22*	1	
	Social Support	.35**	-.17*	.41**	.49**	1
Academic Self-Efficacy	.22*	-.44**	.20*	.34**	.37**	1

* $p<.05$, ** $p<.001$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r=-.20, p<.05$)는 학업지속의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습자일수록 학업지속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SE 모델 요인과 관련하여, 온라인 학습태도($r=.52, p<.001$)와 학업지속의도와는 중간 이상의 강한 정적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사회적 영향 요인인 사회적 지지($r=.35, p<.001$)와 모델링($r=.18, p<.05$)과 정적 상관관계, 그리고 학업 자기효능감($r=.22, p<.05$)과도 정적 상

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학습자가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것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주변인의 지지가 뒷받침되고, 본받을 수 있는 선배 혹은 학습 모델이 있다고 인지할수록, 학업을 지속하는데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학업지속에 대한 의지도 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학업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학업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측정변수를 중심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Table 4. Factors affecting Academic Persistence

(n=181)

	β	t	p	R^2	Adj. R^2	F(p)
(constant)		4.55	<.001			
Academic Stress	-.16	-2.24	.016			
Online Learning Attitude	.44	6.43	.000	.31	.29	15.76 (<.001)
Modeling	-.04	-.53	.595			
Social Support	.13	2.02	.045			
Academic Self-Efficacy	.02	.24	.814			

분석 결과, 학업스트레스와 ASE 모델 요인의 학업지속의도 예측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5.76, p<.001$), R^2 값을 기준으로 2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학업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학업지속의도는 감소하는 부적 관계를 예측할 수 있으며($\beta=-.16, p=.016$), ASE 모델 요인 중 온라인 학습태도($\beta=.44, p<.001$)와 사회적 영향 중 사회적 지지($\beta=.13, p=.045$)가 학업지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주변인의 학습에 대한 강한 지지가 학습자의 학업지속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ASE 모델 요인 중 학업 자기효능감($\beta=.02, p=.814$)은 학업지속의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멀티미디어로 제공되는 온라인 강의가 주로 이루어지는 원격대학 재학생의 학업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학업지속이라는 행위의도를 중심으로 학업스트레스와 ASE 모델(온라인 학습태도-사회적 영향-학업 자기효능감) 요인이 미치는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학업 스트레스는 원격대학 학습자의 학업지속의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학업 스트레스가 학업지속의도를 부정적으로 예측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9][11] 특히 온라인 학습자의 경우 학업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학업스트레스는 2.94점으로 전문대학 학습자의 학업스트레스를 조사한 연구의 2.74(6점척도 기준)점을 6점 점수를 5점으로 환산한 값을 구하여 값의 가중치를 평가한 결과인 2.28점[29]보다 높으며, 사이버대학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2.80~2.81점[9][19]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는 조사 도구와 연구대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이버대학이나 K 원격대학 학습자의 학업스트레스가 일반대학보다 높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원격대학의 성공적인 성취를 위해 필수적인 자기주도적 학습방식이 적용되기 어려운 학습 환경과 고연령 학생층, 직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등의 원격대학 학생특성 요인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ASE 모델의 교육 관련 행위의 수행 의도 분석에 적용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정행위 의도를 사회심리학적 이론 틀을 바탕으로, 개인 차원의 요인과 사회적 영향 요인으로 구분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한 ASE 모델을 이용한 행위의도 과정 분석 연구는 그동안 의학, 보건학 분야에서 건강 행위와 관련되어 활발히 수행되어져 왔으나, 교육학 분야에서는 그 적용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ASE 모델 요인 중 온라인 학습태도와 사회적 영향 중 사회적 지지 요인은 학업지속의도를 정적

으로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온라인 학습태도는 5점 만점에 4.28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K 원격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 연구의 학습태도점수 4.02~4.18점[22]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K 원격대학생 대부분이 대학 학위과정을 필요에 의한 선택과정으로써 인지하고 충분히 학습동기화가 되어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영향은 요인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와 모델링으로 재구성되었는데, 사회적 지지는 5점 만점에 3.66점이었고, 모델링은 2.88점이었다. 이는 선행 연구 결과 중, 학업지속 영향요인으로써 개인요인 중 주변 사람들에 의한 지지 등을 포함한 연구에서 사회적 영향의 하위 영역인 사회적 지지가 학업지속의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3]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영향이 원격대학 학습자의 학업지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또한 원격대학 여성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목표인식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요인으로써,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아지면 학생들의 목표인식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33]고 한 것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성인교육, 온라인 교육에서 사회적 지지는 학생들의 학업 지속 및 성취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지속의도와의 관계는 약한 정의 방향으로 유의하였으나($r=.18, p < .05$), 학업지속의도를 예측하는 모형에서 학습자의 학업지속의도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지속의도가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결과[23]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원격대학생들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일반대학생과는 달리 평균 연령 42.4(± 11.83)세, 직업이 있는 경우가 72.9%이며, 원격학습에 대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73.5%로 직업과 학업병행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원격대학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학업지속의도를 예측하는데 자신이 이 학습과정을 잘 해 낼 수 있다는 내적 심리요인보다는 직업과의 병행 시 학습시간 확보 등 환경적적 요인이 더 큰 설명력

을 가질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와 함께 인구사회 및 학업특성에 따른 학업지속의 도와의 관계에서 기혼, 스티디그룹 참여, 졸업 후 자격증 취득여부는 학업지속의도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면 무엇보다 강력한 가족이라는 사회적 지지원이 확보되는 것이며, 스티디활동 참여여부는 학내 대외활동 참여기회 및 만족도 등의 개인변인이 학업지속 영향요인이라고 밝힌 결과와 일치한다[3]. 또한 졸업 후 관련자격증 취득은 대상자의 거의 절반수준인 47%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2학년인 대상자의 평균연령이 42.4세이며, 직장인이 73%에, 전문대졸 이상의 최종학력이 67%나 되는 인구사회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 강력한 동기요인이 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일반 대학생과는 다른 학습 환경 및 학습자 특성을 지닌 원격대학 학습자의 학업지속의도를 증진시키는 정책수립에 유용한 실제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높은 학업 스트레스를 보이고 있는 원격대학 학습자들의 학업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사이버상의 상담센터나 전문상담인력 배치 등의 제도적 뒷받침[9]과 같은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에 대해 가족과 친구를 비롯한 주변인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원해 준다고 인식할수록 학업지속의도가 높아지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수립 및 지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학내외 다양한 스티디 활동 참여 등을 통해 폭넓은 학습 지원확대 및 멘토 등을 통한 모델링 요인을 확산하고, 장기적으로 졸업 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과 확보와 이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을 통해 학내 구성원 외의 학습자 주변인들에 대한 학업지속에 대한 당위성과 심리적 지지 기반을 마련해 주는 등의 방안 수립을 통해 학업지속의도를 증진시키는 전략에 효과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표본은 K 원격대학교 학생의 특성을 대표하고 있으나, 사이버대학을 포함한 전반적인 온라인대학 학습자에 대한 연구결과 일반화를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또한, 연구방법상의 제한점으로

사회적 영향에 대한 교육학적 개념 정립과 측정도구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원격대학 학습자에게 처음 적용한 사회적 영향 측정도구는 다른 분야의 연구주제에 사용된 도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개발하고, 시험분석 후 타당도 검사를 실시하여 사용하였으나 더 정확한 측정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영향이라는 개념과 하위 영역에 대하여 교육분야의 합의된 의견 도출을 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D. K. Lee, *IDE Statistical Report 2017-6*,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2017.
- [2] D. K. Lee, *Statistical Rreport 2016-5*,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2016.
- [3] H. J. Park, Y. S. Han, and M. S. Kim, "A Study on the Exploring the Academic Persistence of Universities Stud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18, No.4, pp.567-580, 2013.
- [4] Y. R. Jung and J. H. Kwon, *E-learning Preparation Program Development for Junior and Transfer Student of Open Universit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2006.
- [5] C. W. Kern, N. S. Fagley, and P. M. Miller, "Correlates of College Retention and GPA: Learning and Study Strategies, Testwiseness, Attitudes, and ACT,"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Vol.1, No.1, pp.26-34, 1998.
- [6] B. M. Yoo, H. J. Park, and S. B. Cha, "A Study on the Learning Effect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Model with the Use of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 in University Classes,"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44, No.3, pp.133-159, 2013.
- [7] D. W. Han and M. C. Kang, "Investigating

- Factors Influencing University Students' Intention to Dropout based on Education Satisfaction," *Journal of Contents Association*, Vol.16, No.11, pp.63-71, 2016.
- [8] H. J. Kwon, "The Effects of Personal, Institutional, Social Variables on Determination of the Cyber University Students' Dropout Intention," *Journal of Contents Association*, Vol.10, No.3, pp.404-412, 2010.
- [9] J. Y. Joo, A. K. Chung, and A. R. Ha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Academic Stress, Achievement Motivation, Learning Environment, School Flow, Learning Persistence in Cyber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Vol.14, No.3, pp.73-82, 2011.
- [10] J. Y. Joo, J. W. Lee, and S. Y. Cho, "Moder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Task-Value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chievement in Cyber University," *The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Vol.4, No.30, pp.73-92, 2012.
- [11] M. E. Pritchard and G. S. Wilson, "Using Emotional and Social Factors to Predict Student Succes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Vol.44, No.1, pp.18-28, 2003.
- [12] L. Lechner, A. Oenema, and J. de Nooijer, "Testicular Self-Examination(TSE) among Dutch Young Men Aged 15-19: Determinants of the Intention to Practice TS," *Health Education Research*, Vol.17, No.1, pp.73-84, 2002.
- [13] A. Victoir, A. Eertmans, A. Van den Broucke, and O. Van den Bergh, "Smoking Status Moderates the Contribution of Social-Cognitive and Environmental Determinants to Adolescents' Smoking Intentions," *Health Education Research*, Vol.21, No.5, pp.674-687, 2006.
- [14] D. Alewijnse, L. Mesters, J. Metsemakers, J. Adriaans, and J. B. Borne, "Predictors of Intention to Adhere to Physiotherapy among Women with Urinary Incontinence," *Health Education Research*, Vol.16, No.2, pp.173-186, 2001.
- [15] S. M. Li, R. L. Yi, H. C. Hu, and J. S. Huang, "Areca Quid Chewing by Taiwanese Adolescents: Application of the Attitudes Social Influence Self-efficacy (ASE) Model," *Society for the Study of Addiction to Alcohol and Other Drugs*, Vol.98, pp.1723-1729, 2003.
- [16] C. H. Chang, H. C. Ko, J. Y. Wu, and C. P. Cheng, "Social Cognitive Determinants of Betel Quid Chewing among College Students in Southern Taiwan: A Revised Attitudes - Social Influence - Self-Efficacy Model," *Addictive Behaviors*, Vol.32, No.10, pp.2345-2350, 2007.
- [17] J. W. Grube, M. Morgan, and S. T. McGee, "Attitudes and Normative Beliefs as Predictors of Smoking Intentions and Behaviors: A Test of Three Model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25, pp.81-93, 1986.
- [18] Y. I. Ki and C. H. Lee, "Predictors of Mammography Performance in Job Women,"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22, No.4, pp.343-351, 2013.
- [19] Y. J. Joo, N. Y. Kim, and H. K. Cho,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Online Task Value and Self-Regulated Learning, and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in Cyber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Vol.22, No.4, pp.343-351, 2016.
- [20] Y. S. Seo and Y. I. Kim, "Factors Affecting Smoking Middle School Students' Intention to Quit Smoking: On the Basis of the ASE Model,"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Health*

- Nursing, Vol.24, No.4, pp.471-479, 2013.
- [21] Y. S. Seo, Y. I. Kim, and C. H. Lee, "Attitude, Knowledge, and Social Influence as Factors of Smoking Intention among Nonsmoking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29, No.2, pp.81-89, 2016.
- [22] A. R. Cho and S. Z. Roh, "The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Flow, Learning Attitude, Academic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in Cyber University,"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29, No.4, pp.849-879, 2013.
- [23] J. W. You and Y. H. Song, "Probing the Interaction Effects of Task Valu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Learning Engagement and Persistence in an e-Learning Course,"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3, No.3, pp.91-112, 2013.
- [24] K. H. Lee and J. Y.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 Motivation, Course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17, No.4, pp.33-57, 2014.
- [25] K. K. Chon, K. H. Kim, and J. S. Yi,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5, No.2, pp.316-335, 2000.
- [26] A. Blunt and B. Yang, "Factor Structure of the Adult Attitudes Toward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Scale and Its Capacity to Predict Participation Behavior: Evidence for Adoption of a Revised Scale," *Adult Education Quarterly*, Vol.52, No.4, pp.299-318, 2002.
- [27] P. R. Pintrich and E. V. Groot,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82, No.1, pp.33-40, 1990.
- [28] N. Shin, "Transactional Presence as a Critical Predictor of Success in Distance Learning," *Distance Education*, Vol.24, No.1, pp.69-86, 2003.
- [29] E. J. Kim, J. Y. Kim, and J. S. Kim, "The Mediated Effects of Future Time Perspective on the Relations between Academic Volitional Strategies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3, pp.319-338, 2018.
- [30] C. H. Ahn, S. K. Joung, S. W. Kim, and I. H. Choi, "The Analysis of E-learning Learners Characteristics for Improving Teaching and Learning in Onlin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Vol.14, No.4, pp.187-194, 2016.
- [31] S. J. Yune, S. Y. Lee, B. S. Kam, and S. J. Im, "The Relationships among Learning Emotions, Learning Attitudes, Major Satisfaction, Learning Flow, and Academic Achievement of Medical School Students," *Korea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28, No.2, pp.582-595, 2016.
- [32] S. S. Lee and H. S. Lee, "A Comparative Analysis of Learning Factors which Influence on the Academic Achievement in Open University: Focusing on the Case of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Vol.1, No.1, pp.131-150, 2005.
- [33] H. J. Lim and H. S. Ha, "The Effects of Grit, Goal Perception, Academic Work-Family Conflict and Social Support on Academic Adjustment among Female Adult Learners in a Distance University,"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Vol.31, No.1, pp.59-81,
2017.

저 자 소 개

이 다 예(Da Ye Lee)

정회원



- 200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
육공학과(학사)
- 2007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교육학
석사)
- 2017년 5월 : 미국 일리노이대학
교 대학원 인적자원개발(철학박사)
- 현재 : 중앙대학교 한국라이프스킬교육센터 연구원
<관심분야> : 보건의료직군 전문성개발, 일터 무형식
학습

서 영 숙(Young Sook Seo)

정회원



- 1995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
교 간호학과(학사)
- 2000년 8월 : 경북대학교 보건대
학원 보건학(석사)
- 2018년 9월 : 경북대학교 간호대
학 박사과정 수료
- 현재 : 동문고등학교 보건교사
<관심분야> : 학교보건, 청소년 흡연

김 영 임(Young Im Kim)

정회원



- 1977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
과(학사)
- 1980년 2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
학원 보건학(석사)
- 1990년 8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
학(이학박사)
- 현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건강증진, 보건교육